

<버스기사의 양심>

“괜찮습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2017년 7월 중,

직장에 출근할 때 있었던 일이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다. 내가 탄 버스는 사고가 잦은 곳을 지나가는 루트를 지닌 버스라, 그날도 어느 정도의 긴장은 유지하고 있었다. 버스 기사님께서도 그 지점에만큼은 버스를 더 천천히 몰아가며 안정적으로 지나가는 듯했다. 거의 다 빠져나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긴장을 서서히 풀어가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차 하는 순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평!”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뒤차가 버스를 심하게 들이받았다. 승객들은 모두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나마 서있던 승객 중에서만큼은 크게 다친 승객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맨 뒤에 앉아있던 승객들의 부상 크기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사님께서도 창문에 얼굴을 들이받으셨던지 안경알에 금이 가있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기사님께서서는 안경을 벗어서 운전석에 두신 다음 뒤편으로 달려가다시피 하며, 승객들의 안전 상황부터 살피셨던 것이다.

“승객 여러분, 괜찮습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그때 내가 말했다. “그나마 앞쪽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서있던 사람들은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뒤 좌석의 승객들이 걱정됩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기사님께서서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시며 놀란 눈으로 승객들을 살피셨다. “평”이라는 소리가 다 들릴 만큼 세게 들이받아서였던지,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모두 조금씩 다치고야 마는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분명 기사님께서도 안경에 금이 갔을 정도면 신체에 큰 충격이 갔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승객들부터 생각하고 살피시는 모습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훌륭하고 대단했다. 그때 문제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이었는지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님께서 허리를 많이 편찮아 하였고, 바닥에 누운 채로 일

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일부 건장한 청년 승객들까지 합세해서 할아버님을 모시려 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에 선뜻 일으켜 세울 수도 없었다.

사고가 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나갔다. 참고로 난 건장한 청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친 승객들을 함께 대피시키며 나중에 내렸다. 거의 모든 승객이 대피하고 버스 안에 남은 승객들이라고는 청년들과 기사님, 그리고 그 할아버님뿐이었다. 구급대원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할아버님은 저희 구급대원들에게 맡겨주시고, 일단은 버스에서 내려서 응급 치료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청년들은 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기사님께서서는 끝까지 할아버님을 살피셨다. 그리고는 구급대원에게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냥 내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기사님께서서는 끝내 구급대원들과 힘을 합쳐 할아버님을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했고, 마지막까지 할아버님을 부축해서 버스 밖으로 함께 내리셨다. 할아버님께서 내리시자마자 구급대원들은 그를 들것으로 실어 구급차 내부로 이동시켜드렸다. 그리고 곧 바로 인근 병원으로 출발하려는데, 기사님께서서는 “저도 같이 갈게요. 사고 난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사고가 났을 땐 끝까지 기사가 책임지는기 맞습니다.” 라고 하시며 구급차에 올라타셨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내 입에서는 감탄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울컥한 마음마저 함께 솟구쳤다. 너무나도 고마운 기사님이셨다. 직업의식과 기본적인 윤리까지 갖추신 분이 버스를 운전해주셔서 정말이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기사님께서서는 내려서 치료를 받고 있던 승객들에게도 인사를 아끼지 않으셨다.

“승객 여러분. 기사로서 사고를 낸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이 다치지 않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 많이 다치기까지 하셨더라면 저는 앞으로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고맙고 죄송합니다.”

기사님의 진심 가득한 말씀을 듣고 있던 나는 감동스러움에 눈물이 났다. 이 얼마나 양심 있고 훌륭한 기사님이신가. 최근에 배가 침몰하게 될까봐 제일 먼저 빠져나와 도망갔던 일부 선장들의 판결 기사가 자주 보도되었기 때문에, 기사님의 양심 가득한 행동은 감동의 도가니가 되어 승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기사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있던 중년의 한 여자 승객께서는 양 볼에 흐르던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다.

“끝까지 승객만을 생각해주는 기사님께 박수를 칩시다. 저런 기사분이 세상천지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승객과 구급대원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기사님께서서는 오히려 그러지 말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시고는 곧장 구급차를 타고 할아버님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떠나셨다. 이후의 일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허리를 다치신 할아버님도, 기사님도 지금쯤 쾌차하셔서 훌훌 털고 일어나셨으리라 믿는다. 아니 꼭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 일로부터 꼭 3 주째가 되는 날이다. 버스를 탈 때면 이따금씩 그 기사님이 떠오른다. 끝까지 승객들을 책임져주시고, 직업정신과 사람으로서의 윤리와 양심을 지켜주신 그 기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은 많지만, 사고가 난 상황에서 자신보다 승객들을 진정으로 먼저 생각하는 기사님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아직도 나는 다친 데는 없냐며 괜찮은지 물어봐주시던, 그 기사님의 놀란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양심 있다’ 와 ‘정직하다’ 는 말은 바로 이런 사례를 두고 할 수 있는 말 아닐까? 나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서 항상 들었던 말이 있다.

“양심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양심 있고 정직한 행동을 하며 살았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비록 시간이 흐른 지금은 과거의 일이 되어 버린 7월 초의 버스 사고였지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양심 있게 살아가는 삶의 표본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입니다.”

만약 기사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버스를 운전하고 계신다면, 나는 그 버스를 탄 승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입니다.” 라고. 요즘 들어 사람들은 이처럼 말한다. 세상이 너무 변했다고. 양심을 지키기보다 개인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세상이 되어간다고.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있다. 아직은 세상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양심 가득한 기사님과 같은 분이 세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결단코 세상은 그리 쉽게 변화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버스 기사로서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러나 죽음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고 현장에서 과연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양심을 지키고,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을 지켜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오늘부터 우리도 기사님처럼 타인에게 양심을 지키고, 정직함을 바탕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해보자. 살면서 항상 실천해나가고, 항상 듣는 말이 “기분을 지켜라.” 인 것처럼, 기본과 더불어 양심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된 사람’ 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본다.